

- 2 -

3 은행 자체 기술금융 평가 결과

□ (평가 개요) 자체 기술금융 실시 레벨 2 수준인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이 「레벨 3」 상향을 신청

○ 심사결과, 6개은행은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레벨 3 승인

※ '16.하반기, 레벨 1 수준이 승인되었던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전문인력 채용 등의 준비로 레벨 2 상향 신청을 하지 않았음

□ (평가 결과)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모두 「레벨 3」 진입을 승인

○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확충되고 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평가서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 실시 요건 >

항목	예비실시	정식실시		전면실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전문인력 수	5명 이상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평가서 수준	70점이상 60%	70점이상 70%	70점이상 80%	80점이상 80%
물적 요건	별도 조직 마련, 자체모형 구축, 전산화 등			

❶ (전문인력) 6개은행은 전문인력 확대 노력에 집중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크게 보강

* '16.6월말 대비 총 24명의 전문인력이 보강 → 레벨 3의 필요요건인 15명을 상회

- 특히, 기존 은행직원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술금융 전문인력*으로 활용(3명, 우리은행)

* 기술신용평가사 1급 취득(1명) 또는 2년 이상의 기술평가업무경력(2명)

-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 및 기술평가업무 경력 축적 등에 따라 기술금융 전문인력 육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6개 은행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현황 >

	산 업	신 한	우 리	하 나	기 업	국 민
외부 채용	21명	15명	14명	15명	17명	15명
자체 육성	-	-	3명	-	-	-
소 계*	21명	15명	17명	15명	17명	15명
(‘16.상)	(21명)	(10명)	(11명)	(10명)	(14명)	(10명)

❷ (평가 모형) 6개 은행은 평가모형 개선노력 등을 지속하여 전문 TCB 수준에 근접한 기술평가 모형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기술·신용등급 결합비율 조정(신한), 기업규모별(외감·비외감·중기업) 평가모형 세분화(우리), 지표별 등급구간 재산정(국민) 등을 통해 모형 신뢰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❸ (평가서 신뢰도) 전문인력 보강, 평가모형 개선 등으로 평가서 신뢰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이 자체 작성한 평가서 품질, 평가등급 적정성 등 신뢰도 점검 결과, 6개 은행이 모두 양호*한 수준

* '16.6말, 은행의 기술평가서 평균점수 : 83.5점 → '16.12말 : 90.1 / + 6.6

- 다만, 평가서 오류 등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TDB의 컨설팅을 통해 평가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

	산 업	신 한	우 리	하 나	기 업	국 민
70점이상 평가서 비중	80%	100%	100%	100%	100%	100%
평균 점수*	66.7	93.7	96.0	90.7	94.3	98.7
'16.6말 평균	(62.7)	(71.7)	(87.3)	(92.7)	(89.0)	(97.3)

* 평가서 오류 발생시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하고 7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4 평 가

□ 기술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

○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16년 중 연간 25.8조원을 공급하여 연간 20조원의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

* 기술금융 대출 추이(조원) : ('14)4.7 → ('15)32.6 → ('16)58.4 → ('17.1월)59.9

- 특히, 전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점차 금융관행으로 정착되는 모습

*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대출 비중(%) : (15말)17.7 → (16.6말)21.4 → (16말)23.2

< 기술금융 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계	'14년 소계	'15년 소계	'16년 소계	'16.12.말		'17년 1월말
					'16.12.상	'16.12.하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기준	59.9	4.7	27.9	25.8	13.1	12.7	1.5
기술금융 대출 잔액 기준	96.5	8.9	51.7	32.3	16.7	15.6	3.7

-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기술금융 펀드의 본격 투자 실시 및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투자 확대 노력으로,
- '16.상반기 대비 70.3% 확대된 총 7,940억원의 투자자금 공급
('16.6월, 4,661억원 → '16년말 7,940억원. +3,279억원)

* 은행 자체투자 : ('16.6월) 3,098억원 → ('16.12월) 5,275억원
기술금융 펀드 투자 : ('16.6월) 1,563억원 → ('16.12월) 2,665억원

- 다만, TECH 평가에 있어 기 공급실적이 반영된 평가*로 은행권 순위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후발은행의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

* 전체 평가 38%가 과거 기술금융 실적에 영향 → 은행권 순위 고착화의 주요 요인

-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17년 TECH 평가 시부터 과거 기술금융 실적 제외를 추진하고,
- 우수 기술기업 지원시 TECH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우수 기술기업 배점을 2배(10점 → 20점)로 확대하며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기술금융 지원기능을 강화

* i)저신용 기술기업, ii)고성장 기업, iii)미래 신성장 영위 기업

-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실시 수준확대(레벨2 → 레벨3)등과 함께 은행의 기술평가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인력 확충, 자체 평가모형 고도화 등 은행권의 기술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여신관행으로 점차 정착

- 향후 「외부 TCB 평가」 → 「은행 자체 평가」 → 「신용·기술평가 일원화」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소 여신시스템에 내재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평가

4 향후 계획

-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17.1.17.)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

- 은행의 여신심사 모형과 기술금융의 기술신용등급을 통합하기 위한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 구성

* (TCB·TDB) 나이스 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TDB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등

- 일원화를 위한 TCB사별, 은행별 데이터를 수집·분석 중이며 TF 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별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

* (1/4분기) 기술금융 지표 유의성 분석(기술평가 지표가 기업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
(2/4분기) 통합 여신모형 마련, 기술평가 전문인력, 평가서 개선방안 등

<금융 용어 설명>

- TDB(Tech DataBase) : 기술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술·시장·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 TCB(Tech Credit Bureau) :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 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조화·제공

* 현재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가 TCB 수행중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